

# 45억 아시아 스포츠 축제...태극전사 본진 장도 올라



4년을 기다린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모토로 내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8일 밤 9시(현지시간 오후 7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GBK)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남부 수마트라 섬의 중심도시인 팔렘방에서 9월 2일까지 이어질 이번 대회는 18회째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애초 2014년 인천 대회가 끝나고 다음 아시안게임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2014년 4월 대회 개최권을 반납한 뒤 자카르타가 새로 선정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 파이팅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본단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밤 9시 개회식...한국, 금 65개 6회 연속 종합 2위 도전

남북 개회식 공동입장...여자농구·카누·조정서 단일팀 구성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결국 인천 대회 이후 4년 만인 올해 다시 아시안게임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 이 모두 참가하고 1만1,300명의 선수단이 총 40개 종목에서 금메달 465개를 놓고 기량을 겨룬다.

4년 전 인천 대회에서는 36개 종목에 총 439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이번에는 볼리스포츠, 스포츠클라이밍, 무도를 비롯해 카드 게임인 브리지, 레저스포츠 영역이었던 제트스키와 패러글라이딩 등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무대에 오른다.

무도에는 기존 종목이었던 우수에 새로 추가된 삼보, 주짓수, 쿠라시, 펜카실라트 등 5개 종목이 묶였다.

3대3 농구와 태권도 품새도 아시안게임 세부 종목으로 첫선을 보인다.

40개 종목 가운데 한국은 브리지에는

불참한다. 또 무도의 펜카실라트, 쿠라시, 삼보에도 출전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5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72개 등 총 208개의 메달을 획득해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6회 연속 종합 2위를 수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효자 종목 ‘태권도, 양궁, 펜싱, 유도’를 비롯해 야구, 축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과 클라이밍·패러글라이딩 등 신규 종목 등에서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인천에서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를 거둬들였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인천에서 금메달 151개, 은메달 109개, 동메달 83개를 따면서 1982년 뉴델리 대회부터 9회 연속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본부임원 51명, 경기임원 186명, 선수 807명 등 총 39개 종목에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는 남북단일팀 38명이 포함된 수다.

남북한은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종합대회에서는 올해 평창동계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단일팀 ‘코리아’(영어 축약 국가명 COR)를 이번 대회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꾸렸다.

아울러 남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선율에 맞춰 역대 11번째로 공동입장한다. 여자농구 임영희(우리은행)가 우리축기수를 맡았으며 남북 공동입장 시 북측 기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핸드볼, 축구, 농구 등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로 이미 대회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김성조 선수단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42명과 태권도, 배드민턴, 골프, 체조, 하키, 레슬링 등 선수단 등 총 175명으로 구성된 우리 선수단 본진은 15일 출국했다. /연합뉴스

## 광주 출신 골프 유망주 아시아 정상 ‘노크’

한체대 최호영·송일고 유해란 AG 메달 싸움이 선봉 “목표는 금...단체전 맞춰가면 개인전 성적 따라올 것”

아시아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골프 국가대표는 남자 4명, 여자 3명 등 총 7명이다.

이중 광주 출신 남녀 선수가 치열한 선발전을 뚫고 태극마크를 획득, 메달에 도전한다. 송원중-함평골프고를 졸업하고 한국체육대에 재학중인 남자골프대표 최호영(21)과 송일고를 졸업하고 현재 송일고에 재학중인 여자골프대표 유해란(17)이다.

한국은 1982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체 32개의 금메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3개를 가져왔다.

특히 2006 도하 아시안게임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 걸린 금메달 4개를 싸움이 하며 아시아 최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안방에서 열린 4년 전 인천 대회에선 아시아 정상 지위가 흔들렸다. 여자 개인전에서만 박결이 금메달을 가져왔을 뿐 남자 개인과 남녀 단체전에선 은메달에 그쳤다.

당시 남자부에선 현재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대만 반정중이 2관왕에 올랐고, 여자 단체에선 태국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태국의 아시안게임 골프 종목 첫 금메달이었다.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태국 여자골퍼들의 도전은 4년 전보다 더욱 거세졌다. 최근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첫 통과하며 인상을 남긴 아타야 티티쿨은 우리 여자 선수들을 위협할 유력한 메달 후보다.

4년 전 가장 많은 금메달을 가져간 대만이나 전통의 강자 일본도 여전히 기



최호영 유해란

량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아시안게임 골프 금메달이 없는 중국도 PGA 투어 차이나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진정을 비롯해 린위신, 위안예 등 남녀팀이 특히 경계 대상이다.

아시안게임 골프는 남자 4명, 여자 3명이 출전해 개인전을 치르며 단체전은 남자의 경우 상위 3명, 여자는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양진호 광주시골프협회 전무이사는 “단체전은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전은 경기 당일 선수 컨디션이나 날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성적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특히 태국 선

수들의 실력이 좋아 경계 대상 1호다”고 말했다.

올해 네이비스컵 단체 2위 개인 공동 6위를 했고 7월 현재 세계랭킹 1,336위인 최호영은 “목표는 금메달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시합이므로 어떤 시합보다 신중하게 준비했다”며 “남은 시간동안 팀 멤버들과 호흡도 잘 맞추며 장점들을 앞세워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여자아마추어 우승, 네이비스컵 개인 및 단체 우승, 배어크리크 컵 2위를 하며 7월 현재 세계랭킹 75위인 유해란은 “올초부터 대표팀 모두가 훈련도 열심히 했고 단체전을 대비해 팀 호흡도 열심히 맞춰왔다”며 “컨디션 조절을 잘 한다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체전을 잘 맞춰가면 개인전 메달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골프 종목은 오는 23~26일 자카르타의 폰독 인다 골프코스에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최진화 기자



정현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앤 서던오픈 단식 1회전에서 잭 소크를 상대로 플레이하고 있다. 정현이 2-1로 이겼다. /EPA-연합뉴스

## 정현 세계 3위 텔 포트와 맞대결 웨스턴 앤 서던오픈 1회전 잭 소크에 역전승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5위·한국체대)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랠프커와 맞대결을 벌인다.

정현은 16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앤 서던오픈(총상금 566만9,360달러) 2회전에서 후안 마르틴 텔 포트(3위·아르헨티나)를 상대한다.

텔 포트는 키 198cm의 장신으로 2009년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 1988년생인 텔 포트

는 키도 정현보다 10cm나 더 크다. 투어 대회 단식에서 22차례나 우승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정현은 지난주 로저스컵에 출전하려다가 등 부위 부상을 기권하는 등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15일 열린 잭 소크(20위·미국)와 1회전 경기에서도 2-1(2-6 6-1 6-2)로 이겼으나 내용이 좋지 못했다. 정현으로서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착실히 지키고 가야 3회전 진출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최혜진

## 여자 골프 ‘양강’ 최혜진·오지현 내일 개막 보그너 MBN 여자오픈 맞대결

(362점)이 오지현(349점)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지만 상금 랭킹에서는 오지현(6억6,543만 원)이 최혜진(6억2,631만 원)을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상금 6억원, 대상 포인트 350점을 넘는 선수는 오지현과 최혜진 둘밖에 없다.

상금 3위 장하나(26)는 4억7,087만 원으로 5억 원 고지를 넘지 못했고 대상 포인트 3위 이승현(27)은 237점으로 300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오지현과 최혜진은 대상 포인트 상금에서 대회 한 번에 따라 바뀔 만큼 격차가 좁다.

이런 오지현과 최혜진은 오는 17

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양평 터스타 후 골프엔리조트)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 나란히 출전한다.

나란히 2승씩 올린 둘은 3승 고지 선점 경쟁도 뜨겁다.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거둔 오지현이 상금세를 댔다면 최혜진은 작년 이 대회 우승자로서 코스에 대한 자신감이 앞선다. 최혜진은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출전한 이 대회에서 우승해 스타덤에 올랐다.

둘은 장하나와 함께 1, 2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오지현은 “우승하면 다음 대회 성



오지현

적이 썩 좋지 않았다.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일단 톱10을 목표로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최혜진은 “첫 타이틀 방어전 때 욕심을 냈더니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타이틀 방어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동강대 19일 대통령기대학야구 출전 순천 팔마구장서 세계사이버대와 32강전

동강대학교 야구부가 올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탈락과 7월 대학선수권 일몰 월드 패의 아쉬움을 털고 대통령기에 도전한다.

동강대 야구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 순천 팔마구장에서 제52회 대통령기전국대학야구대회 세계사이버대와 32강전을 치른다.

동강대 야구부는 이번 대통령기를 통해 올 3-6월 대학야구 U리그 전·후반기에서 왕중왕전 탈락의 부진을 씻겠다

는 각오다.

특히 동강대 야구는 지난달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73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강호 단국대를 맞아 선전했지만 6-7 1점차 일몰 월드게임으로 패해 아쉬움을 더했다. 단국대는 이 대회 4강에 올랐다.

한편 올 대통령기 대학야구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의 주최로 16-28일 32개 대학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최진화 기자